

“‘좀비딸’은 고양이 키우다 떠올린 ‘기른 정’ 이야기”

400만 영화 원작 웹툰 이윤창작가 “코로나19로 메시지 더 명확해져, 슬픈 해피엔딩이죠”

어느 날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온 세상이 아수라장이 된다. 관객 400만명을 동원하며 올해 최고 흥행작으로 올라선 영화 ‘좀비딸’은 좀비가 되어버린 딸을 버리지 않고 숨겨 기르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았다. ‘좀비딸’의 원작 웹툰을 그린 이윤창작가는 18일 인터뷰에서 고양이를 기르던 중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벙갈고양이 배구를 키우는 그는 고양이도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손과 발을 물려고 해도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자, 사람을 물어뜯는 좀비 딸을 키우는 아버지를 떠올렸다고 한다.

그는 “자식을 둔 부모만큼의 부성애는 감히 느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고양이를 통해 ‘나 자신보다 소중한 무언가’를 알게 됐고, 기른 정 또한 넣은 정 못지않게 크고 소중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며 절망적인 좀비 세계관 속 따뜻한 부성애를 그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좀비딸’에서 가장 부각되는 것은 정환(영화 속 조석정 분)이 딸 수아(최유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다. 사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환은 자기 딸을 죽일 수 없다며 끌어안고 산다. 따져보면 이기적

이고 그릇된 행동이지만, 그 누구도 정환에게 쉽게 돌을 던지진 못한다. 이 작가는 “(사람들이) ‘나였어도 정환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공감해줬기에 사랑받을 수 있었다”며 “어찌됐건 정환은 법을 어겼고, 사람들을 위협하게 했다. 그러나 정환의 희생으로 치료제가 만들어진다는 설정을 더해 독자들이 그를 마냥 미워할 수 없게끔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환의 숭고한 희생이 있기에 ‘좀비딸’은 “슬프지만 해피엔딩”이라고 강조했다. ‘좀비딸’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



웹툰 ‘좀비딸’의 이윤창작가 <NEW 제공>

재됐다. 연재 도중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졌고, 마치 웹툰 속 정환과 수아처럼 확진자인 것을 숨기고 이동한 사람들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이 작가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정환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져서 만화를 일찍 끝냈다는 글들도 보이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정부 지침에 반대하는 정환의 모습이 더욱 부각돼 만화가 심도 있는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욱 명확해지는 느낌이었다”고 돌아봤다. ‘좀비딸’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는 재미와 감동을 모두 선사하는 이야기, 만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캐릭터를 바탕으로 관객몰이에 성공했다. 이 작가는 “벌써 영화를 3번 봤다”며 “가장 애착 가는 장면은 수아의 훈련을 위해 배를 탈 때다. 짧은 순간이지만 수

아의 훈련에 대한 희망, 정환이 앞으로 겪게 될 많은 고난이 떠올라 위로해주고 싶었다”고 했다. ‘좀비딸’은 영화 제작에 앞서 EBS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고, 현재 이모티콘 등 캐릭터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 작가는 ‘좀비딸’이 여러 방면으로 확장되고 사랑받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웹툰의 모티브가 된 고양이 캐릭터 애용을 꼽았다. “확실히 애용이 지분이 9할은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웹툰에서) 군인이 ‘나 비야’하고 부르자 ‘김애용’이라고 애용이가 말하는 모습이 화제가 돼서 많은 사람이 ‘좀비딸’을 보러왔죠. 벙구가 애용이의 모티브예요. 현재 고양이 세 마리를 키우는데, 벙구에게만 조용히 (고마움의 표시로) 간식을 줍니다.”

/연합뉴스

최연태의 오늘의 운세		음력 6월 26일 천문역원 (062)673-2427
子	쥐띠: 주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면 얻을 것이 별로 없다. 36년생 모르던 것도 찾아가는 운이다. 문제가 될 줄 알았다면 반드시 해결하고 지나가야 할 운이다. 48년생 짐점을 귀찮을 정도로 반복하는 것이 이롭다. 준비가 미흡하면 이동운에는 아쉬움이 크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60년생 주택보다 논밭 등의 농지나 임야 등의 토지 거래에 이로운 운이다. 72년생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작용한다. 한 가지일에 매진하려고 하는 마음과 자세가 이로운 운이다. 84년생 믿을 수 있다면 무조건 믿고 맡긴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수: 23 행운의 색: 다홍색	
	소띠: 변화를 해야 할 때 변화하지 못하는 것이 자신과 타인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된다. 37년생 시간이 걸려도 안전하게 하고 신중할 것. 49년생 하체가 부실하면 다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산책하는 것과 움직임을 여윌게 하는 것을 잊지 마라. 61년생 불안하면 생각 없이 계획을 바꾼다. 생각 없이 바꾼 계획이 성공적일 수는 없다. 73년생 에너지를 축적해둔 사람이라면 자신의 레벨을 높이거나 능력을 발휘하기 좋은 때이다. 85년생 약속을 함부로 변경하는 것은 자신에게 다가올 행운을 버리는 것과 같다. 97년생 혼자만의 시간을 갖도록 하라. 행운의 수: 17 행운의 색: 빨간색	
寅	호랑이띠: 지인의 소개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수. 남녀의 만남에도 좋은 운이며, 거래나 취업의 문제에도 이로운 만남이 되겠다. 38년생 문서상의 문제로 가족끼리 마찰이 생긴다. 50년생 부실한 것은 즉시 보완하는 것이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 62년생 가장 쉬운 경거망동에 해당하는 행동이 적절하지 않는 것이다. 74년생 컨디션을 잘 살펴서 일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86년생 현재의 상태를 점검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운이라 하겠다. 98년생 다리를 걸치고 있거나 바람을 피우는 상태라면 들뜬나탕 신수를 겪기 쉽다. 10년생 잘 모르는 것을 뜯어고칠 필요 없이 빨리 물러서야 하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수: 58 행운의 색: 초록색	
	토끼띠: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편안함이 결정된다. 39년생 상대가 중요한 사람일수록 신뢰를 잃게 된다. 51년생 치료나 수술 운이 있다. 회복이 빠르고 결과가 좋으니 두려워할 필요 없겠다. 63년생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상대자와의 인연이 돈독해지며 진지한 관계가 이어지겠다. 75년생 주변에 우월한 사람이 있다. 편안한 마음이 되도록 교감하는 소통이 필요하다. 87년생 과도한 근심 걱정으로 정신과 육체의 피로도가 쌓이기 쉽다. 99년생 세상 의 주인공은 나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신이다. 행운의 수: 28 행운의 색: 파란색	
辰	용띠: 한 우물을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실함 속에 재물 운이 가득한 운세다. 40년생 도둑은 쫓아야지 잡으려고 하면 외려 화를 당할 수 있다. 52년생 생각만 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 것은 그저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한 일이다. 64년생 외부인(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사람)을 집안에 재우는 일은 좋지 않다. 76년생 그 순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누적된 문제가 이유인 경우가 많다. 88년생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를 알아주지 않는 느낌이 강해서 억지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진다. 행운의 수: 14 행운의 색: 흰색	
	뱀띠: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운이 거의 정반대일 정도로 크게 나타나게 된다. 41년생 활발하고 싶은 생각이지만, 몸은 그렇지 못하겠다. 53년생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로운 운세다. 65년생 크게 싸웠더라도 화해가 가능하다. 오해와 이해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는 운이다. 77년생 가족들과 적당한 대화는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89년생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지 않는 것이 구실을 피하는 방법이 되겠다. 01년생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고, 유지를 못하는 운이다. 행운의 수: 78 행운의 색: 은색	
午	말띠: 능력이 없는 데도 아는 관계라고 겉에 두고 증책을 맡기려고 하는 것은 배를 전복 또는 난파시키는 결과로 나타난다. 42년생 상황이 불리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에게 이로운 상황으로 변한다. 54년생 자녀의 문제가 이로우며, 하는 일에도 행운이 따른다. 66년생 개인적인 일보다 공동의 일이며 공적이고 단체의 일에 우선되는 운이다. 78년생 잘 찾아온 사람의 강한 반응이 충격적일 수 있다. 반대로 늘 콘소라지던 사람은 목소리가 작아진다. 90년생 관계 유지를 잘하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되고, 유지를 못하는 사람은 그저 낡은 사람일 수 밖에 없다. 행운의 수: 34 행운의 색: 노란색	
	양띠: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어느 것이 더 이익인지 따지느라 저울질을 한다면 사람도 잃고 손해도 볼 수 있다. 43년생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해놓고서 장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의하라. 55년생 그냥 두어도 결국은 내 몫은 돌아오니 다들 필요가 없다. 67년생 육체적 건강을 잘 챙겨야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친척함이 바람직하다. 79년생 과도한 말을 하는 사람은 성적인 문란함과 부정적인 말을 부적절한 관계를 만들기도 쉽다. 91년생 자기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하는 운이다. 03년생 구하면 열릴 것이 없고 두드리면 얻을 것이라는 말이 통하는 운이다. 행운의 수: 05 행운의 색: 갈색	
申	원숭이띠: 긍정적이라면 대단한 시너지효과가 만들어지는 운이지만, 부정적이라면 목표점은 의미가 없어진다. 44년생 타인의 의견도 존중하고 받아들이라. 56년생 억울할 뻔한 일에서 구제되는 운. 대인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일이 생긴다. 68년생 자신의 활동성이 크지 않아 답답함이 생길 수 있다. 80년생 몸은 건강하지만 솔직한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은 흘려버리는 것이 바람직해졌다. 92년생 돈을 들여서 이익을 내는 일에 신경을 많이 쓰면 오히려 돈만 잃고 이익은 없다. 04년생 같은 상황이라도 전혀 다른 상황으로 생각하는 두 사람의 미래는 전혀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수: 69 행운의 색: 빨간색	
	닭띠: 계획을 단시일 안에 이루려고 하면 불길하다.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45년생 건강증에 의한 실물수가 있다. 근처에 있으니 마음을 안정하고 다시 찾아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57년생 자기의 노력이나 계획에 없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운이다. 69년생 귀인이 나타나 꼬였던 일이 해결된다. 81년생 이름을 알리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을 운. 절대로 교만하거나 불손한 태도는 금물이다. 93년생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물질이 되어서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 05년생 반복적인 실패는 실패의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행운의 수: 15 행운의 색: 분홍색	
戌	개띠: 실적을 한 상황이라면 실적을 점검하고 보충하는 시기로 삼는다는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 바람직해졌다. 46년생 입에 의해서 재물 운이 들어오고 나날 수 있다. 58년생 가화만사상의 운세. 가족 구성원들의 화목에 위에서 하는 이들의 성패가 달렸다. 70년생 문제거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는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 82년생 몸은 고달파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드니 큰일을 준비하기에 제격이다. 94년생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때를 놓쳐서는 안 되는 날로 생각할 여유로운 운이 아니다. 06년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때에 따라 목적을 향해 강하게 도전하는 모습도 도움이 되겠다. 행운의 수: 67 행운의 색: 갈색	
	돼지띠: 지금은 작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운세가 확정되는 운이기 때문에 컨디션을 잘 유지하고 기회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35년생 행인을 귀찮게 하며 전도나 포교를 하는 것은 대부분 제대로 된 종교가 아니다. 종교인을 조심하라. 47년생 근심거리가 있어서 심기가 불편하다. 59년생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왕액이 따른다. 71년생 세합(歲合)의 운이 있으니 한동안 떨어져 있었거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과 다시 재결합하게 된다. 83년생 기교와 가식 없는 진심이 통하는 운세로 진심 어린 대화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행운의 수: 03 행운의 색: 파란색	

tbn
광주교통방송
FM 97.3MHz

● 주요 프로그램 안내

출발! 광주대행진 (07:00~08:53)
프로듀서: 정희준 | 진행자: 노희설 | 작가: 박지영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광주교통방송의 아침 대표 교통정보 프로그램으로
재난과 교통 위주의 정확하고 생도감 있는 출근길을 책임집니다.

tbn 차차차 (14:05~15:53)
프로듀서: 권유경 | 진행자: 윤지현 | 작가: 정안숙
출출운전은 이제 그만~
오후의 나른함을 타파하는 시간!
충겨운 트로트 노래와 신나는 코너로 즐거운 길벗이 되어드립니다.

광주 FM97.3MHz, 전남 동부권 FM103.5MHz
청취자 참여전화 080-9701-3333
수신자 부담 무료 교통재보전화 080-333-8000

남도매거진 (16:05~16:55)
프로듀서: 이진아 | 진행자: 장원나 | 작가: 김시영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이슈와 정보, 인물, 문화를 다양하게 다루는
지역밀착형 종합정보 프로그램.
남도가 빠지면 섭하지라~

달리는 라디오 (18:05~19:53)
프로듀서: 김미경 | 진행자: 최유규 | 작가: 한효정
복잡한 퇴근길의 편안한 친구 같은 방송!
광주교통방송의 저녁 대표 교통정보 프로그램으로
더 안전하고 더 신속한 정보를 안내합니다.

KCTV
광주방송
KCTV광주방송 채널 5번
뉴스재보 FAX) 062-417-5041 www.kctv.co.kr

◆이번 주 주요프로그램◆

프로그램 안내

KCTV뉴스 (19:00~19:20, 23:00~23:20)
지역의 주요 뉴스와 토네 소식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동구, 북구 등 지자체 뉴스 방송.

포토힐링타임
아름다운 자연과 인물을 담은 사진을 재구성한 영상 앨범.
아마추어 사진작가, 전문 활동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출발VJ시대 (12:30~12:50, 20:30~20:50, 04:30~04:50)
시청자들이 직접 촬영하고 만든 아마추어 방송인들의
뜻뜻하고 생기 넘치는 영상제작물을 만나본다.

TV커머스 우리 동네 우리 정어 <포항 축축 노가리>
케이블 방송의 '가성비 TV커머스 방송'. 그날 구워먹어도 튀겨먹어도
후식으로 해 먹어도 맛있는 포항 축축 반건조 노가리를 소개한다.
방송: 8월 11일(월)~8월 15일(금) 6:00~7:00, 16:00~17:00.

KCTV초대석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 편>
광복 80주년을 맞아 해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초대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보훈청이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계획에 대해 듣고, 대한민국 역사 속
보훈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방송: 8월 13일(수), 16일(토) 11:15~11:45

SO네트워크 <오 정해 보고 전북 남원 편>
소리꾼이자 방송인인 오정해씨가 전북 남원의 곳곳을 다니며 우리가 미처
몰랐던 남원의 매력과 전통문화를 온전히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공간들과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방송: 8월 14일(목), 16일(토) 13:00~13:50

CMYK